

##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服飾 研究

— 胡服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김 소 현

배화여자전문대학 의상과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Terracotta Warriors at the Tomb of Qin Shi Huang

**So-Hyeon Kim**

Dept. of Clothing, Baewha Womans Junior College

**Kyu-Wha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92. 11. 2.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correspondence of the costumes of the terracotta warriors at the tomb of Qin Shi Huang to the dress of nomadic people.

The Chinese took the dress of nomadic people into their costumes so that they might practise shooting arrows from horse back in the Age Of Wars. The terracotta warriors at the tomb of Qin Sin Huang provide us with substantial evidence that Qin Dynasty inherited the system of wearing the dress of nomadic people from Zhao.

Figures of calvarys wear the jackets of nomadic people, but figures of other warriors wear Han jackets. This means that the aim of taking the dress of nomadic people is to be convenient in practising shooting arrows from horse back. Nomadic people adjusted their jackets to left, because they road on a horse from left for being the tunga only on the left. But calvarys adjusted their jackets to right. In those days, China didn't have a tunga. So there was no necessity for riding from left. And Chinese were accustomed to adjusted their jackets to right. This is the reason why calvarys adjusted their jackets to right, though they wear the dress of nomadic people. Soldiers wear trousers. Some have puttee, some have their leg bounds.

All the soldiers tightened their coats or jackets with belts which were inhereted from nomadic people. They wear either shoes or short boots.

The figur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rank, espically in their hats and armours. General

wears a cap adorned with pheasant' feathers, officer wears an unadorned cap, and men are hatless or in turbans. Calvary's headgear looks like a p'ing-chin-tse which was correspondence to the headgear of nomadic people.

Soldiers wear armours according to duty, and armours are differentiated by rank.

From the state of terracotta warriors, I think that the warriors were made from BC 246 to BC 210 which is equal to the date of making the tomb of Qin Shi Huang. Then the date of making the terracotta warriors was between 60 and 100 years since the king Wu Ling of the state of Zhao took the dress of nomadic people.

## I. 序 論

농경민족인 漢族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투쟁은 中國 역사의 주축을 이루고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中國의 문화는 동질적인 문화가 연속적으로 계승된다기 보다는 이질적인 문화에 의해서 단절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복식의 문화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中國 복식의 전통 양식은 深衣 형태의 上衣과 下裳이 연결된 의복이었다. 그들은 농경을 영위하는 乘車 민족으로서 그들의 의복은 寬衣 大袖가 그 특징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胡服이 中國에 전해지면서 그들의 복식은 또 다른 복식 문화의 정착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胡服이 中國에 전래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戰國時代라고 말하지만 출토물을 통한 복식의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1974년에 中國 陝西省 臨潼縣에 위치한 秦始皇陵에서 많은 兵俑이 出土되므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兵俑의 복식은 古代 中國에서 착용했던 胡服이 어떠한가를 잘 알려준다.

秦에서는 趙의 胡服제도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므로<sup>1)</sup>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복식은 趙 武靈王이 도입한 胡服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本 考에서는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의의를 밝히고, 복식사적 배경으로 胡服의 전래과정과 그 구성을 규명하며,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복식을 통하여 秦代에 착용된 胡服에 대하여 착용 실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兵俑의 복식은 지위에 따라서 표현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胡服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中國인이 일컫던 이른바 胡服은 바로 우리 고유의 북장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와 近隣 관계에 있는

服飾문화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秦代에 착용된 胡服은 袴褶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직 袴褶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기 以前이므로 本 考에서는 胡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II.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복식사적 의의

### 1.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의의

「史記」, 秦始皇本紀에 의하면 秦始皇은 BC 258년 戰國時代 秦의 莊襄王의 아들로 趙의 수도 邯鄲에서 태어나, 13세(BC 246)에 王位에 올랐고, 卽位 26년(BC 221)에는 全 中國을 통일하고 皇帝가 되었다. 그는 BC 246년, 王位에 즉위하면서부터 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천하통일 이후에는 徒刑囚 70여만명을 동원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능의 공사는 그의 死亡 후, BC 210년에 끝이 났다.

그러나 그가 죽은 몇년 후에 秦이 멸망함에 따라, 項羽軍은 秦始皇陵을 파괴하고 불태웠다. 그리하여 秦始皇陵은 2200여년이란 세월 동안 커다란 墳丘만을 드러낸 채 모든 것이 지하에 파묻혀 있었다. 그런데 俑坑이 발견됨에 따라 秦始皇陵의 조사 발굴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俑坑은 秦始皇陵의 부속시설의 하나로서 능으로 통하는 墓道에 설치된 크고 작은 俑坑들이 모여 이루어진 일련의 대형 陪葬坑이다. 1974년에 俑坑이 처음 발견되었고, 그 후 발굴 조사과정에서 3개의 다른 俑坑들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 俑坑은 유물도 없고 자료적 가치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1호, 2호, 3호의 俑坑만을 兵馬俑坑이라고 했다. 兵馬俑坑의 전체적인 構圖는 고대 군대의 주둔 방식을 충실히 따라 指揮部(3호俑坑)와 左軍(2호俑坑), 中軍(미완성갱), 右軍(1호俑坑)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각 俑坑에서 출토

된 陶甬은 1호甬坑에서 평균 신장 1.8M의 陶甬 1,000여체, 2호甬坑에서 陶甬 224체, 3호甬坑에서 陶甬 68체로서, 兵甬의 확실한 수량은 3개의 甬坑을 모두 발굴 복원한 후에야 알 수 있겠지만 兵馬甬이 배열되어 있는 밀도에 비추어 7,000여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수많은 兵甬은 각각의 모습이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며 지위와 역할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용경 발굴 관계자들은 秦의 1개 군대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2)</sup>.

兵甬에는 최고 지휘자를 필두로 각급 지휘자와 다수의 병사가 있고, 병사도 騎兵과 步兵으로 분류되며 손에 든 무기나 자세 등이 여러가지이다. 또한 冠帽, 衣服, 甲, 帶, 履類, 髮型, 수염 등이 각각의 지위, 직무 및 성격에 어울리도록 잘 대응시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秦의 軍服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秦은 戰國時代 7雄의 하나였으나 후에 中原을 통일하여 戰國時代에 중기부를 찍은 나라로서 趙의 胡服 제도를 그대로 채용했다. 그러므로 秦에서 착용했던 胡服을 구체화 시켜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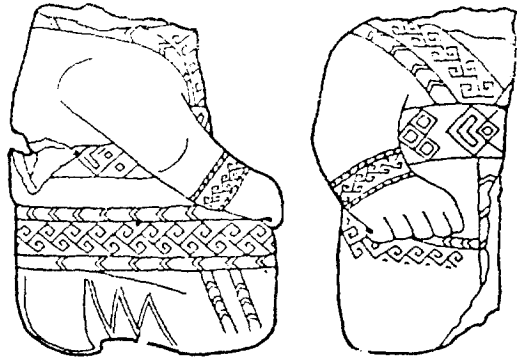
甬坑內的 수천여체의 兵馬甬은 그렇게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秦始皇 死後 몇개월 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sup>3)</sup> 秦始皇 생전에 능의 건설과 더불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兵馬甬의 제작연대는 능의 건설 시기와 마찬가지로 BC 246년에서 BC 210년 사이의 것이며, 이것은 趙 武靈王이 胡服을 내린 BC 307년으로부터 불과 60년 내지 100년 사이의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兵甬을 통하여 趙 武靈王이 도입한 胡服, 즉 戰國時代에 채용했던 胡服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 2. 복식사적 배경

### 1) 胡服의 전래

秦에서는 趙의 胡服제도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上下가 분리된 窄袖肢體型의 袴袴 양식인 胡服을 漢代에는 袴褶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漢 이후 袴褶은 胡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sup>.

司馬遷의 「史記」 趙世家에 胡服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다. 즉 「趙 武靈王 19년(BC 307년), 왕이 이르기를 北에는 燕나라, 東에는 胡(東胡國)의 우환이 있고, 국방은 아직 미비하다. 세속과 다른 것을 행하면 반드시 화



[도 1-1] 商, 安陽侯家莊 出土 跪坐石彫  
(출처: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2쪽)

가 미치는 법인데 이때 胡服을 채용하고 騎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나라 힘을 길러야 할 것이라 하여 신하들에게 胡服을 내리고 朝廷에서 착용케하는 胡服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中國에서 胡服을 처음으로 착용한 시기는 王國維가 「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胡服考”에서 고종한 바와 같이 戰國時代 趙 武靈王 때로 잡는다.

그러나 沈從文<sup>5)</sup>은 [도 1-1]의 殷, 安陽侯家莊 出土 跪坐石彫와 같은 殷代 出土 遺物에 표현된 의복양식, 즉 소매가 좁고 衣의 길이가 짧아 무릎에 오는 것이 이른바 胡服 양식으로서 原始古代 中原의 고유양식이며, 堯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許進雄<sup>6)</sup>은 「詩經」, 采芣苢의 “采芣而 무릎을 덮고, 다리는 천으로 동여매었네”라는 귀절을 근거로 하여 殷代 出土 遺物에서 볼 수 있는 바지와 같은 차림새를 腳絆 형식으로 해석하였다. 殷代에는 長衣를 일상복장과 예복으로 삼았으나 수렵이나 노동을 할 때는 불편하므로 短衣를 착용하되, 추위와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폭이 좁은 천조각으로 종아리에서 무릎까지 둘러싸맨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腳絆 형식이 발전되어 바지가 된 것이며 戰國時代에 도입된 胡服은 중국의 의복 형식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중국에서 胡服이 처음으로 채용된 시기에 대해서 異見이 있으나, 戰國時代 여러나라들이 북방유목민족의 衣服과 戰術을 채용했던 사실은 근래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趙 武靈王의 胡服 채용 이전부터도 胡服이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胡服이 服制에 편입된 시기는 바로 趙 武靈王 때부터라고 하겠다. 趙 武靈王이 채용한 胡服은 匈奴族으로 대표되는 北方遊牧騎馬民族의 服裝을 일컫는 것으로서 騎馬에 편리하도록 上下가 분리된 襦袴製이다.

胡에 대한 최초의 概念은 農耕民族인 漢族이 주변 騎馬民族을 의식하기 시작한데서 발생되었다. 內田吟風이 지적한 바와 같이 胡는 본래 蠻族이나 異民族을 의미하는 한자가 아니라 '아래로 늘어진 소의 턱살'을 뜻하는 것이다. 단지, ko, ho, hu 등으로 불리워지는 민족의 이름을 음역한 한자로서, 匈奴를 비롯하여 戰國時代에 오르도스 山西 河北의 북부에 있던 林胡, 東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민족명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말, 匈奴가 發興한 후에는 匈奴와 胡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sup>7)</sup>.

匈奴族은 中國 역사상 체계적 국가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최초의 遊牧民族으로서 Hun族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藤堂明保에 의하면 胡를 古代에는 ho, 中世에는 hu로 발음하였으며, 奴는 증오하는 나머지 적을 노예로 동일시하여 붙인 말로서 胡族은 바로 Hun族, 즉 匈奴族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8)</sup>.

일반적으로 中國에서 胡를 지칭할 때는 각 시대마다 그 인접국 또는 多量の 文化가 유입되어오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어 後漢中期 이전은 匈奴, 그 이후에는 파미르 고원의 東西에 있는 여러나라를 胡, 西胡라 불렀고, 魏晉 南北朝時代 이후에는 西胡를 주로 胡라 불려서 西域을 가리키게 되었다.

趙 武靈王이 채용한 胡服이란 匈奴族으로 대표되는 북방 유목 기마민족의 복장을 도입하여 中國의 固有服制인 下裳 대신 袴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王國維<sup>9)</sup>는 「內則」의 “衣不帛襦袴”, 「左氏傳」의 “微裘與襦裘 亦袴也”를 인용하여 옛 藝衣에 襦袴가 있었으나 裳과 袍에 덮여 袴가 겉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袴를 겉옷으로 착용하게 된 것은 袴褶에서 시작되었다. 길고 목이 넓은 端衣, 深衣 등 中國 전통복장인 裳은 본래 乘車의 복장이므로 乘馬에는 불편했기 때문에 乘馬의 풍습이 들어오면서 乘馬에 편리한 袴가 착용된 것이다.

趙 武靈王의 胡服令은 騎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진 습이므로 비록 당시에 袴褶이라는 명칭은 없었을지라도 胡服의 服制는 上衣下袴制인 것이 분명하다. 袴를 겉에 입고 그 위에 短衣를 착용하는 풍속은 北方胡服의 공통점으로 항상 초원을 밟고 달려야 하

는 필요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특징이었다. 袴는 襦와 같이 착용하여 襦袴 또는 襦裘이라 하며,褶과 같이 입을 때에는 袴褶이라 불렀다. 漢 이전에는 韋袴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胡服은 또한 旃裘라고도 하는데, 旃裘는 毛織 또는 皮革으로 만들어진 胡服을 가리킨다. 그러나 袴褶은 반드시 皮革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서 織物製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上衣下袴制의 양식을 가리키는 명칭이다<sup>10)</sup>.

上衣下袴制 외에 당시 胡服의 구성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後代의 袴褶과 같은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1)</sup>.

## 2) 胡服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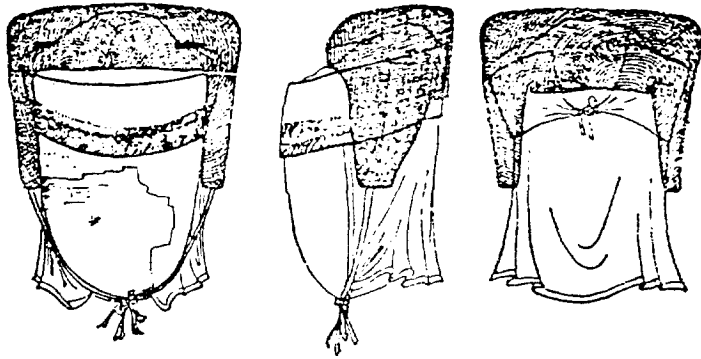
「戰國策」에 있는 바와 같이 胡服은 冠帽, 衣服, 具帶, 靴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冠帽

趙 武靈王에 의해서 수용된 胡服의 冠帽는 「後漢書」, 與服志에 의하면 惠文冠이다<sup>12)</sup>. 惠文冠이란 명칭은 趙 武靈王의 아들, 何의 諡號인 惠文에서 비롯된 것으로 金璫冠飾과 蟬文, 貂尾, 鳥羽尾 등을 插飾한 冠이다. 周錫保<sup>13)</sup>는 「戰國策」에 “齊의 嬰兒謠가 이르기를 大冠은 箕, 즉 삼태기와 같다”는 기록을 근거로 惠文冠의 形態가 皮弁이라고 보았다. [도 2-1]의 戰國時代 洛陽 金村 出土 刺虎鏡 騎士가 쓴 冠帽가 바로 삼태기의 형상을 닮았고, 좌우에는 鳥羽가 꽂혀 있



[도 2-1] 戰國, 洛陽 金村 出土 刺虎鏡 騎士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上」, 91쪽)



[도 2-2] 漢, 武威磨咀子 出土, 武冠  
(출처: 『文物』, 1972, 12期,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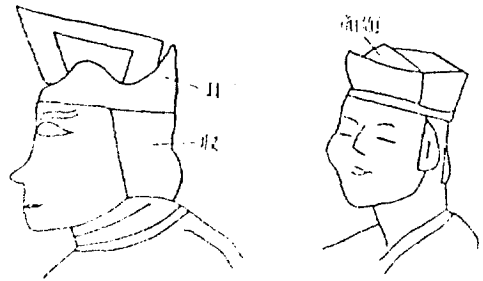
다. 이것이 趙에서 쓰던 冠의 형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戰國時代 당시 齊에는 이미 이러한 冠이 있었고, 그 유래가 趙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秦에 계승되었고, 漢代에는 武冠, 武弁, 繁冠, 大冠 등으로 불렸으며, 南北朝 이후로는 建冠이라고 하였다. 즉, 戰國時代 趙에서 武인들이 사용했던 惠文冠이 漢代에는 [도 2-2]의 武威磨咀子墓 出土物과 같은 籠冠 형태의 武冠으로 변하고, 후에 北朝 冠制의 定型이 된 漆紗籠冠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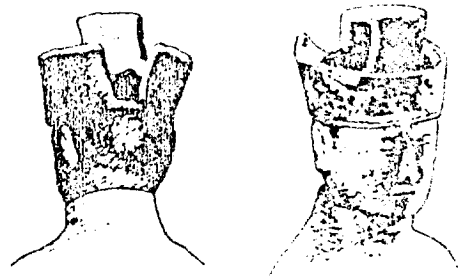
金, 蟬, 貂, 鳥羽 등을 冠飾으로 쓰는 것은 胡의 풍속이다. 金을 사용하여 堅剛, 百鍊, 不耗를 나타냈고, 蟬은 이슬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여 고결함을 상징하였으며, 貂는 한랭한 지역에서 이마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冠에 덧붙였는데 하나의 首飾으로 변했다. 鷩이나 鷩鷩의 羽尾를 꽂는 것은 鷩이나 鷩鷩가 서로 비슷한 새로서 한마리가 죽어야 싸움을 멈추는 사나운 새이기 때문에 무사의 용맹함을 상징하였다<sup>14)</sup>.

鷩尾羽를 插飾한 武冠을 鷩冠이라고 하며, 貂皮를 가하고 金蟬 장식을 한 것은 貂蟬冠이라고 한다. 본래 방한을 위하여 양쪽 귀를 덮었던 것이 漆紗를 써서 매미날개와 같이 가늘고 얇게 되었으므로 매미의 의미로 惠라 표현 하였다고 후세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한다<sup>15)</sup>.

冠 밑에는 內冠으로서 幘을 썼다. 幘의 사용 목적은 두발을 감싸는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冠 밑에서 內冠의 역할을 하였다. 官職에 있는 자는 內冠으로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幘만을 쓰기도 했으며, 冠을 착용할 수



[도 2-3] 耳, 取, 顏題가 있는 책  
(출처: 林巳奈夫, 『漢代の文物』, 17쪽)



[도 2-4] 進賢冠의 밑에 쓰는 幘, 成都羊子山 출토  
(출처: 林巳奈夫, 『漢化的文物』, 17쪽)

없는 사람들은 幘을 冠帽로 착용하였다.

幘의 原初形은 弁의 일종인 頰로서 戰國時代까지 文武官이 모두 착용했다. 秦에서는 諸侯를 平定한 후에 武將들에게 絳柏로 首飾을 삼아 귀천을 구별하게 했는데, 그 후 점차 額부분과 顏題가 만들어지고, 정수리 뒤부분에 웅기난 兩耳([도 2-3])가 덧붙어서 幘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이것이 漢代 이후 계승되어 冠

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文人의 것은 長耳, 武人의 것은 短耳라 하여 進賢冠은 長耳이고 惠文冠은 短耳라 하였다<sup>16)</sup>. [도 2-4]는 成都羊子山 出土 陶俑으로 進賢



[도 2-5] 西晉, 長沙永寧 二年墓出土 青釉對坐俑, 進賢冠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上」, 113쪽)



[도 2-6] 後漢, 洛陽上林苑壁畫  
(출처: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上」, 97쪽)

冠 밑에 쓰는 幘을 썼으며, [도 2-5]는 西晉 長沙永寧 2年墓 出土 陶俑으로 進賢冠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도 2-6]은 後漢, 洛陽上林苑壁畫로 왼쪽에 서있는 사람이 內冠으로 幘을 쓰고 그 위에 武弁大冠을 썼다. 後漢末 都邑에서 유행한 幘은 後部の 左右에 兩耳가 달렸고, 額이 짧고 耳가 길며, 顏頰나 耳의 모습은 대부분 三角形으로 裁飾하였다.

## (2) 衣服

中國의 전통적인 의복의 형식은 衣와 裳이 이어진 深衣制이다. 넓고 길게 이루어졌으며, 여밈이 깊어 繞襟을 이룬다.



[도 2-7] 春秋, 山西侯馬牛村出土 陶範  
(출처: 「中國美術\*」)

胡服의 上衣인 褶은 左衽의 衣로서 겹옷이며 겹옷으로 착용되고, 形態는 袍와 비슷하나 길이가 짧고 소매는 넓은 上衣으로 인식된다<sup>17)</sup>. [도 2-7]은 春秋, 山西侯馬牛村出土 陶範으로 左衽 窄袖의 短衣에 袴를 착용하고 있어 전형적인 胡服양식을 보여준다. 본래 漢族의 여밈은 右衽이므로 左衽은 미개한 문명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周錫保<sup>18)</sup>는 이 像이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이므로 捕虜像이고, 이 像의 출토 시기는 趙 武靈王때 보다 빠르므로 東胡나 匈奴 등 당시의 胡人의 服裝이라고 추정하였다. [도 2-8]은 河南省 洛陽의 戰國墓에서 出土된



【도 2-8】戰國，洛陽 金村 韓墓出土，銀人像  
(출처：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究」，17쪽)

銀製 胡人像으로 머리에는 펠트 혹은 革製라고 생각되는 胡帽을 썼고, 길이가 짧은 筒袖의 上衣와 袴를 착용하였다. 杉本正年은 이 銀人像을 설명하기를 깃은 襟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넓은 목을 접어 놓은 것으로 추울 때는 이것을 세워서 방한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이 것이 이른바 前漢의 「淮南子」에 '卷領'이라 하고, 後漢의 「高誘」는 이것을 注釋하여 '皮衣屈而統之，如今胡家韋襲反褶爲領也'라 한 것이며, 王國維가 "匈奴의 韋褶을 漢人이 '皮衣屈而統之'로 일컫은 것"이라 한 주장과 일치되는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胡服은 본래 皮革製였으나 布製로 그 素材가 달라짐과 동시에 漢化되어 점차 통이 넓어지고, 여유있는 형태가 되었으며, 여밈 방식 역시 右衽이 되었다. 또한 胡服의 기능성 때문에 많은 中國人들이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胡服에 대한 인식은 '虞旅之賤服'이라 하여 賤視하였다. 漢末에 전쟁이 잦아지자 胡服을 착용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고, 魏의 太子가 수렵복으로 착용하면서부터 상하가 모두 함께 착용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袴褶이라는 이름도 생겨났다. 江表傳<sup>19)</sup>에 처음으로 袴褶의 두 글자가 이어서 나온다. 胡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므로 韋褶이라 부른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漢代에는 袴褶이라 하여 이 후 胡服과

袴褶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후 袴褶은 鮮卑에게서 발생된 胡服인 盤領衣, 즉 常服으로 대체되면서 褶은 점차 소멸되고 盤領袍가 유행하였다.

### (3) 具帶

中國 古代의 복식은 단추가 없이 帶로 여며 입었다. 帶鉤가 있는 帶를 사용하게 된 것은 胡服에서 도입되었는데 具帶라 칭한다. 帶鉤를 胡名으로는 師北, 鮮卑라 했다. 胥鞮, 犀毗, 師銳頭는 모두 鮮卑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으로 鮮卑라는 명칭은 東胡인 鮮卑族이 쓰던 帶鉤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趙 武靈王이 지칭했던 胡는 東胡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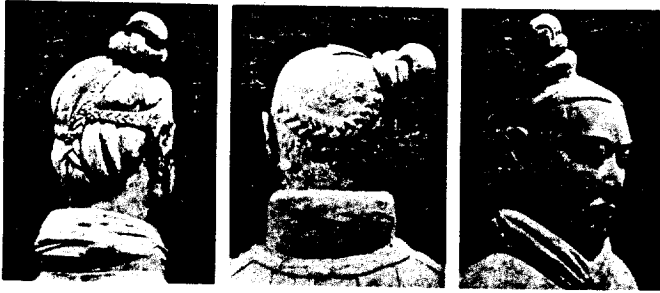
具帶는 장식에 따라 校飾革帶, 鞍飾革帶, 起梁帶 등으로 불리웠으며 胡名으로는 郭洛帶, 廊洛帶, 鉤絡帶라 하고 略稱으로 絡帶라고도 했다.

### (4) 靴

「釋名」에 이르기를 "예전에는 烏履는 있으나 靴는 없으며, 靴는 經典에 보이지도 않았다. 靴는 본래 胡服으로 趙 武靈王 때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한 「隋書」, 禮儀志에 "履는 모든 服飾에 다 신지만 袴褶服에만은 靴를 신는다. 靴는 胡履로서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戎服을 입을 때 신는다"고 하였다. 가죽으로 만든 얇은 신, 즉 鞋는 裘 등의 皮革製 의복과 더불어 中國사회에서도 고대부터 행해졌다. 그러나 유목기마민족에게서 수입된 靴는 승마에 편리한 半長靴 형식으로 가죽으로 만든 袴와 더불어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널리 유라시아 기마민족의 공통적인 복장이었고 그 형상 또한 스키타이, 蒙古, 突厥 등이 거의 같았다. 胡服의 채용과 더불어 靴는 漢民族 사이에 폭넓게 보급되었다.

## III. 秦始皇陵 兵俑의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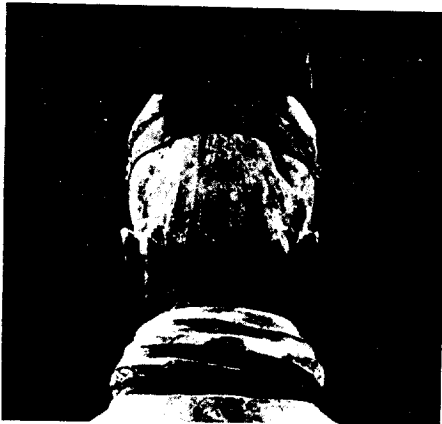
兵馬俑坑 出土의 陶俑은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다. 兵俑은 職務에 따라 步兵, 車兵, 騎兵으로 구분되며 武裝狀態에 따라 袍俑과 甲俑으로 구분된다. 兵俑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衣와 袴를 착용하고, 衣 위에 帶를 띠며, 다리에는 행전을 하고 履 또는 靴를 신었다. 또한 階級 및 職務에 따라 冠帽 및 甲을 각각 달리 착용했다.



[도 3-1] 秦始皇陵兵俑의 髮型 I  
(출처: 田邊昭三編譯, 「秦始皇陵 兵馬俑」)



[도 3-2] 秦始皇陵 兵俑의 髮型 II  
(출처: 「秦始皇陵 兵馬俑」)



[도 3-3] 秦始皇陵 兵俑의 髮型 III  
(출처: 「秦始皇陵 兵馬俑」)



[도 3-4] 진시황릉 兵俑 中 兵卒의 쓰개  
(출처: 「秦始皇陵 兵馬俑」)

1. 髮型 및 冠帽

兵俑의 髮型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도 3-1]과 같이 앞머리를 좌우로 나누어 땀을 가닥과 뒤에서 정수리쪽으로 땀아 올라온 가닥을 합하여 한가닥

으로 만들고, 그것과 남은 머리를 빗어 올려 오른쪽 머리 위에 상투를 튼 형태이다. 거의 대부분의 陶俑이 이와 같은 髮型을 하고 있다. 둘째는 [도 3-2]에 보이듯이 머리를 전후 좌우에서 모아서 뒷머리에서부터 바구니 짜듯이 땀아 올리되 머리 위에 髻를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는 두번째 髮型과 같으나 [도 3-3]에 서와 같이 땀지 않고 束髮만 한 것이다.

오른쪽 위로 상투를 틀어올린 髮型을 한 兵俑은 대부분 冠帽가 없다. 맨상투로서 상투를 묶은 袖단 있을 뿐이다. 다만 갑옷을 입은 兵俑 중에서 [도 3-4]와 같은 頭巾을 쓴 것도 있다. 頭巾은 머리에 밀착되어 오른쪽으로





[도 3-5] 진시황릉 兵俑 中 중간 지휘자의 冠帽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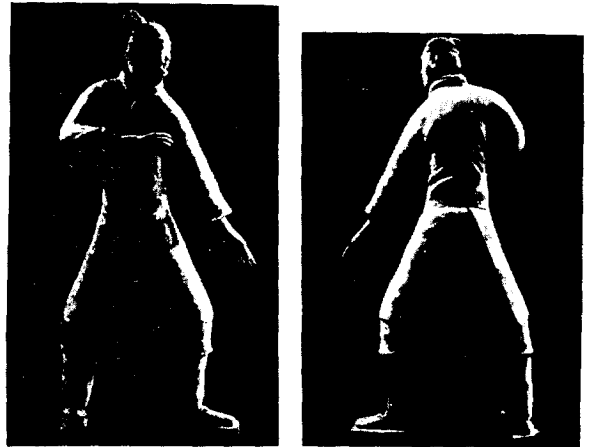
뼈죽하게 솟은 상투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끈으로 동이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 아마도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周禮」, 春官에 “무릇 兵事에는 韋弁服을 입는다”고 있으므로 頭巾은 다른 가죽으로 만든 韋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번째와 세번째 머리형태에는 거의 冠이 씌어져 있다.鬚가 올라와 있으면 冠을 쓰는데 방해가 되므로 정수리 부분을 평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冠에는 [도 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식이 없는 것과 [도 3-6]과 같은 장식 있는 것의 두종류가 있다. 冠은 冪巾幘의 전신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額題와 額이 생기고 頭巾과 額부분이 연결되므로 幘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冠에는 鷩尾羽등을 꽂아 용맹함과 더불어 귀천을 구별하던 胡의 풍습대로 冠에 장식을 하여 계급을 구별하였다. 古代로부터 冠帽는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듯이 兵俑에도 그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즉, 鷩尾羽를 장식한 鷩冠은 최고 지휘자, 冠만을 쓴 자는 중간 지휘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자는 兵卒이라고 생각된다.

騎馬兵의 모든 차림새가 胡服과 흡사하듯이 冠帽 역시 그러하다. 冠帽는 漢代에 보이는 冪巾幘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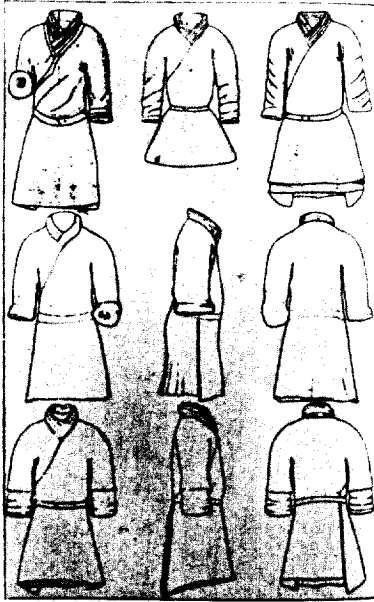


[도 3-6] 진시황릉 兵俑 中 최고지휘자의 冠帽 앞면, 뒷면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도 3-7] 진시황릉 兵俑 中 袍俑 앞면, 뒷면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특색 중의 하나는 계급의 高下를 막론하고 또한 武裝의 輕重에 상관없이 머리에 冪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戰國時代 다른 나라의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전투에 임했으나 秦의 군



[도 3-8] 진시황릉 兵備의 여러가지 袍  
 (출처: 「진시황릉병마용」,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도 3-9] 진시황릉 兵備 中 騎馬兵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사는 맨발과 맨머리로 적과 싸웠다고 한다. 이것은 곧  
 秦나라 군사들의 용감성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20)</sup>.

2. 衣와 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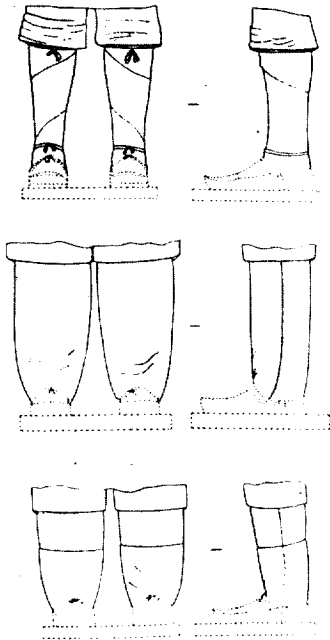
길이는 무릎 위까지 오고, 交領, 窄袖, 우임의 上衣를  
 입고 아래에는 袴를 착용했다. 그 위에는 繞襟인 漢族  
 고유의 袍를 착용했다. 고대에는 군복으로 착용하는 戰  
 袍도 일반적으로 袍<sup>21)</sup>라 칭하였는데, 戰袍는 일반적으  
 로 겹으로 하며, 추울 때는 숨을 두었다. 漢 이후 戰袍는  
 褶이라 칭하게 되었고 戎服으로 착용되었다<sup>22)</sup>.

杉本正年은 兵備이 착용한 의복이 실루엣으로 보아 숨  
 을 둔 袍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 3-7, 3-8]과 같이 兵  
 備의 戰袍는 여전히 漢族의 전통적 여밈양식인 繞襟이  
 다. 그러나 [도 3-9]에 나타난 바와같이 騎馬兵의 衣만  
 은 繞襟이 아니고, 胡服에 가까운 양식을 보인다. 또한  
 부리가 오무라진 긴 바지를 착용하여 말타기에 편리하도  
 록 되어있다. 이러한 차림새는 후대에 보이는 袴褶과 거  
 의 동일하다. 이것은 趙 武靈王이 騎射를 위해 胡服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袴 위에는 行膝과 脚絆, 跗注 등을 두르기도 했다. 跗  
 注는 戎衣의 하나인 足甲으로서 다른 가죽으로 만든다.



[도 3-10] 진시황릉 兵備 中 跗注를 착용한 甲備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도 3-11] 진시황릉 兵俑의 각반(上), 진시황릉 兵俑의 행등(中·下)  
(출처: 「진시황릉병마용」)

형태는袴와 같으며 바지에 연결하여 착용하는 것이다. [도 3-10]의 兵俑의 착용 모습에서 보면 허벅지까지 대어져 있다. 行膝과 脚絆은 한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이 된다. 즉 행동을 발회목에서 장딴지까지 바지 위에 눌러 치는 것으로 끈을 달아서 돌려매게 되어있으며 脚絆은 발에서 무릎 아래까지 감은 형질 데이다<sup>23)</sup>. 행등과 脚絆을 착용하여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시각적으로도 날렵한 인상을 주었다. 부리가 오무러져 있는 袴 위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다. [도 3-11]은 秦始皇陵 兵俑의 행등 및 脚絆이다.

### 3. 甲

秦始皇陵 出土 兵俑은 甲俑과 袍俑으로 구분된다. 軍陳으로 보아 主體部는 갑옷을 입고 창, 칼, 활 등으로 무장했으며, 선발대는 戰袍만을 입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에는 화살통을 지고, 손에는 활을 들었다<sup>24)</sup>. 甲俑과 袍俑은 士와 卒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즉, 甲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은 아무래도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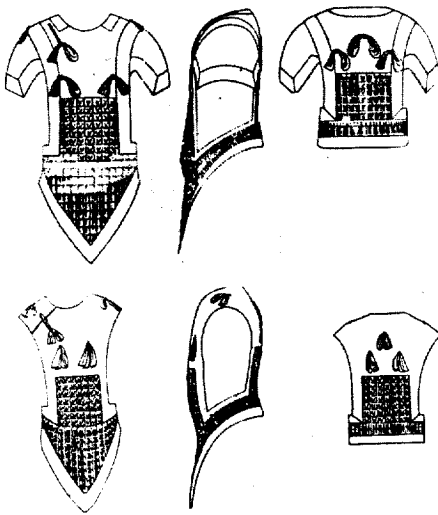


[도 3-12] 진시황릉 兵俑 中 袍를 입은 최고 지휘자俑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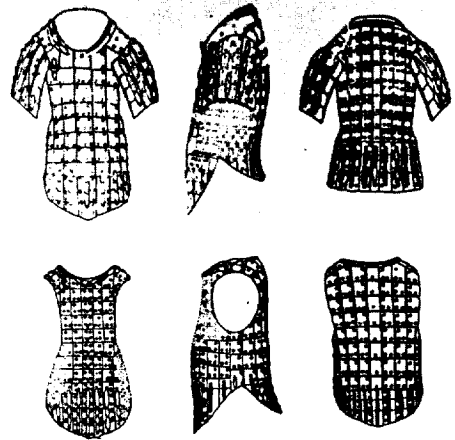
이 높아야 가능하므로 甲俑은 甲士이고 袍俑은 徒卒이라는 것이다<sup>25)</sup>. 그러나 [도 3-6, 3-12]에서 볼 수 있듯이 지휘자도 袍俑과 甲俑으로 구분되므로 武裝의 정도는 계급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직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甲俑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甲을 착용했을 것이다.

「徒瀨箋」에 “甲은 지금의 鎧로서, 가죽으로 만든다. 鎧는 쇠붙이로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戰國時代 이전까지는 단지 皮革으로 만든 甲이 있을 뿐이었으나 鐵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鎧와 兜鍪가 생겼다. 鎧甲은 무기의 殺傷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肩臂部를 보호하는 掩膊, 胸을 보호하는 胸甲, 兩腋에 貼하는 護腋, 兩腿 위로 늘어뜨리는 腿裙, 목 부위를 둘러싸는 頸鎧 등 鎧甲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착용하기도 했다. 또한 甲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甲의 바깥에는 裋甲이라 하는 外衣로 덮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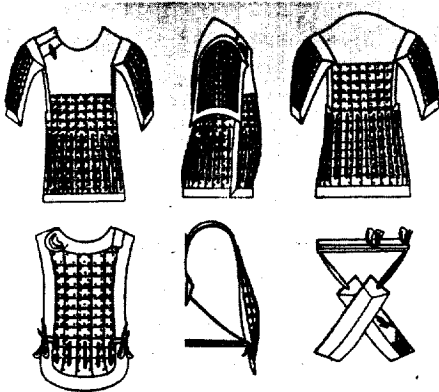
「荀子」에 “甲은 犀, 兕 鮫魚의 皮로 만드는데 견고하기가 金石과 같다”고 했다. 甲片과 甲片은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위에 漆을 했다. 특히 甲片이 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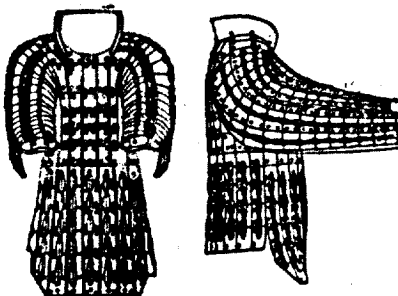
[도 3-13] 진시황릉 兵俑의 甲, I  
(출처: 「진시황릉병마용」)



[도 3-16] 진시황릉 兵俑의 甲, IV  
(출처: 「진시황릉병마용」)



[도 3-14] 진시황릉 兵俑의 甲, II  
(출처: 「진시황릉병마용」)



[도 3-15] 진시황릉 兵俑의 甲, III  
(출처: 「服飾篇上」)

기 비늘처럼 작고 세밀한 것을 魚鱗甲이라 하였다.

최고 지휘자는 양쪽 어깨, 가슴, 등에 채색한 매듭 장식과 삼각형의 문양이 있는 魚鱗甲을 착용하였다. [도 3-1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매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소매가 없는 것은 가슴과 등 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후에 袴褶服의 한 요소가 된 裋褐이다. 戰國時代로부터 秦에 이르기까지 아직 철의 생산이 많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革으로 만들어진 甲을 입었을 것이나 소수의 지휘자는 鐵甲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간 지휘자는 채색한 문양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胸甲이나 최고 지휘자의 것과는 형태가 다른 [도 3-14]의 魚鱗甲을 착용했다.

士卒들도 여러가지 형태의 甲을 착용하였다. 특히 車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馬夫(御手)는 목부터 발끝, 손등까지 덮는 [도 3-15]의 甲을 착용하였다. 전차 싸움에서 다부가 부상당하거나 죽으면 승패는 이미 관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도 3-16] 역시 兵俑이 착용한 甲의 한 형태이다.

騎馬兵의 甲은 소매가 없고, 길이는 허리까지만으로도 짧게 구성되어 말을 타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4. 具帶, 履類

모든 兵俑은 [도 3-17]과 같은 帶鉤가 있는 革帶를 찼다. 帶鉤가 있는 帶는 胡服에서 도입된 것이다. 兵俑이



[도 3-17] 진시황릉 兵俑이 착용한 革帶  
(출처: 「秦始皇陵兵馬俑」)

던 帶鉤의 종류는 다양각색으로 여러가지가 있다.

兵俑이 신고 있는 履類에는 신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前者는 中國에서 본래부터 착용하던 것이고 後者는 胡服에서 채용된 것이다. 戍衣로 신던 革履로서 鞮가 있었다. 당시 履의 재료로는 布, 氈, 革 등이 사용되었으나 兵俑이 신은 履는 戍衣로서 신은 것이므로 革製인 鞮라고 할 수 있겠다. 鞮와 靴, 모두의 발등과 발목에 끈을 묶어 행동을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履의 형태는 모두 신등이 네모지게 처리된 方口形이 되었고 앞꿈치의 형태에 따라 평평하게 되어있는 齊頭履, 앞꿈치의 끝이 올라온 翹尖履, 앞꿈치가 바닥부터 꺾여 올라온 翹頭履로 구분된다. 제일 많이 착용된 신발의 형태는 方口 齊頭履이다. 半長靴 형태의 靴는 高筒靴라고 하였다<sup>26)</sup>.

#### IV. 結 論

秦始皇陵 出土 兵俑의 服飾은 中國의 胡服 채용의 실재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첫째, 兵俑의 제작연대는 秦始皇陵의 건설시기와 마찬가지로 BC 246년에서 BC 210년 사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兵俑의 복장은 BC 307년, 趙 武靈王의 胡服 채용으로부터 불과 60년내지 100년 사이의 것이라 하겠다. 秦에서는 趙의 胡服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므로 秦始皇陵 出土 兵俑은 趙 武靈王이 도입한 胡服, 즉 戰國時代에 채용했던 胡服의 실상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중국에서 胡服이 처음으로 채용된 시기에 대해

서는 異見이 있으나, 胡服이 服制에 도입된 시기는 바로 趙 武靈王 때부터이다. 趙 武靈王이 채용한 胡服이란 匈奴族으로 대표되는 北方遊牧騎馬民族의 服裝을 일컫는 것으로서 騎馬에 편리하도록 上下가 분리된 襦袴製이다. 여기에 皮弁 형태의 惠文冠을 쓰고, 帶鉤가 있는 帶를 갖추어 입었다.

셋째, 秦始皇陵 出土 兵俑은 胡服 채용의 목적이 騎射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모든 兵俑은 여전히 漢族의 고유한 여밈양식인 繞襟의 袍를 착용하고 있지만 騎馬兵만은 繞襟이 아닌 앞은 여밈, 좁은 소매의 상의를 착용하여 胡服에 가까운 양식을 보여준다. 胡服의 여밈이 左衽인 것은 馬鐙이 초기에는 왼쪽에만 달려 있어 항상 좌측에서부터 말에 오르기 때문이었다<sup>27)</sup>. 中國에서 馬鐙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西晉代로서<sup>26)</sup>, 秦始皇陵 陶馬俑에는 말안장은 있으나 馬鐙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騎馬兵의 복장이 胡服 양식이기는 하지만 左衽이 아닌 것은 漢族에게는 이전부터 우임에 익숙해 있고, 아직 馬鐙이 없으므로 굳이 왼쪽에서부터 말에 오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네째, 胡服에서 비롯된 帶鉤의 채용이 모든 兵俑에게 일반화 되어있다. 또한 신발의 경우, 靴가 鞮와 더불어 착용되었다.

다섯째, 騎馬兵의 冠帽은 胡服에서 유래한 戰國時代의 惠文冠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은 漢代의 平巾幘과도 유사한 것이다. 그 밖의 兵俑에서 볼 수 있는 冠帽은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 즉, 兵卒은 맨상투이거나 弁을 썼으며 중간 지휘자는 장식 없는 冠, 최고 지휘자는 장

식이 있는 冠을 썼다.

여섯째, 甲은 職務에 따라 착용하였으며, 또한 계급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것을 착용했다.

秦始皇陵 兵俑이 착용한 복장, 즉 衣와 袴의 二部武衣服은 漢으로도 계승되어 軍服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 폭 넓게 착용되었다.

### 參 考 文 獻

- 1) 「後漢書」, 志 第30, 輿服 下.
- 2) 「文物」, 1975年, 11期, 1~30쪽, 田邊昭三 編譯, 「秦始皇陵兵馬俑」(東京:平凡社), 6~11쪽, (1983),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秦始皇陵兵馬俑」, 33~38쪽, (1990)을 참고 하였다.
- 3) 「史記」, 秦始皇本紀에 의하면, 秦始皇은 BC 210년 7월에 사망하여 9월에 鄜山에 장사지냈다고 되어 있다.
- 4) 王國雄, “胡服考”, 「觀堂集林」 卷18, 8쪽.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東京:文化出版局), 271쪽, (1979).
- 5) 深徒文, 「中國古代服飾研究」(春港:商務印書館 春港分館), 2~3, 16~17쪽, (1981).
- 6) 許進雄著, 홍희譯, 「中國古代社會」(서울:동문선), 269쪽.
- 7) 內田吟風, 「北アジア史 研究-匈奴篇」(京都:同朋舍), 34~36쪽, (1976).
- 8) 藤堂明保(1976), “胡と ということば”, 「服裝文化」150, 112~114쪽.
- 9) 王國雄, “胡服考”, 「觀堂集林」, 卷 第 18, 5쪽.
- 1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古代編」(東京:文化出版局), 163쪽, (1979)
- 11) 「戰國策」에 “趙 武靈王이 大臣 周紹에게 胡服의 衣冠과 具帶와 黃金師北를 내리고 왕자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冠帽, 衣服, 具帶, 靴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12) 「後漢書」, 志, 第 30, 輿服 下
- 1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臺北:丹青), 68쪽, (1984).
- 14) 「後漢書」, 志, 第 30, 輿服 下
- 1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臺北:丹青), 68쪽, (1984)
- 16) 「後漢書」, 志, 第 30, 輿服 下
- 17) 「急就篇」, “襜褕袷褶袴褲의 注에 ‘褶重衣之最在上者也, 其形若袍 短身而廣袖, 一曰左衽袍也’
- 18)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臺北:丹青), 72쪽, (1984).
- 19) 晉의 虞溥가 지은 冊名이다. 그 책은 전하지 않으나 三國志의 注 中에 많이 인용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20) 田邊昭三 編譯, 「秦始皇陵兵馬俑」(東京:平凡社), 147쪽, (1983).
- 21) 「詩」, 秦風, 無衣의 首戰歌, “豈日無衣, 與子同袍, 王於輿師, 修我戈矛”.
- 22) 王維提, 「衣飾의 天地」(春港:商務印書館), 93쪽, (1991).
- 2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9, 10(東京:大修館書店), (1955~58), 「東亞漢韓大辭典」(서울:동아출판사), (1982).
- 24)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秦始皇陵兵馬俑」, 33~38쪽, (1990).
- 25) 王維提, 앞책, 93쪽.
- 26) 「文物」, 11期, 16쪽, (1975).
- 27) 徐秉混, “遼寧出土의 契丹族服飾”, 1992. 7. 30. 제11회 국제복식학술회의 발표.
- 28) 田邊昭三 編譯, 「秦始皇陵兵馬俑」(東京:平凡社), 144쪽, (1983)